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의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제언

사람은 하나님이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섬겨야

최근 용인 캠프 벽돌 사망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했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10월 8일 오후 4시경 용인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모(여,55)씨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누군가가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을 했고, 옆에서 도와주던 박모(29)씨는 머리를 다쳤다.

사건 초반에는 캠프 또는 캠프대(길고양이를 도와주는 여자와 남자)들에 대한 증오로 급기야 살인이 일어난 것으로 사건의 초점이 맞춰졌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집을 지어주는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길고양이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가족이나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이 있던 사람이 그들을 증오하여 죽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CCTV와 탐문조사,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으로 수사한 결과 용의자는 10살짜리 초등학생으로 친구들과 물체 낙하실험을 하기 위하여 벽돌을 던진 것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잠재된 몇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첫째는 길고양이 처리에 대한 논란이다. 그러지 않아도 길고양이가 점점 많아져 동네의 위생 문제가 있는데 캠프와 캠프대 때문에 그 숫자가 더 늘어나므로 사회적 민폐라는 의견과 동물관련 시민단체를 위시로 바람직한 동물보호 문화를 조성하지는 않겠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용인 캠프 벽돌 사망사건은 초반에는 혐오범죄로 추정되었다(KBS뉴스 캡처)

이 문제는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이라는 양비론으로 해결될 수는 없어 보인다. 둘 다 맞는 의견이다 보니 결국 길고양이 수의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각 지자체도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여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한 개체 수 조절에 예산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 또한 양측도 그 적절한 숫자를 대화와 양보로 정하여야 한다.

둘째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그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이다. 요즘 청소년의 육체적 정성적 성장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각종 범

죄 정보에 접하는 연령도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춘 나라가 여럿 있는 것('나이 어린다고...형사미성년자 면죄부 논란', 세계일보 10.16.)으로 볼 때 14세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4년과정에서 중력에 의한 낙하실험이 교과과정에 없다며 용의자가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 사건의 용의자가 피해자가 벽돌을 맞을 줄 몰랐다는 진술도 거짓진술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무튼 요즘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성

적 성장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때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인성교육의 결핍이다. 경찰과 마스크이 끌고가던 동물혐오범죄라는 수사방향과 전혀 다르게 형사미성년자의 중력실험으로 비롯된 사고라는 수사 내용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 했다. 그러자 용의자 학생의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도대체 학교에서는 중력실험만 가르치고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는 것이냐는 내용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교육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성 함양이라는 측면은 완전히 도외시 되고 밥벌이를 위한 교육만 가르치다 보니 치열한 경쟁심만 가지게 되어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니다. 최근 인문학 열풍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탐구가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면서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학교 교육이 인성 개발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는 요원한 상태이다. 참으로 시급한 문제임을 모르니 안타까울 뿐이다.

인성교육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고 하겠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탐구해 들어가면 무엇이 나오는가? 과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있는 것인가? 어쩌면 더욱 그 답이 모호해지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더욱 현실점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승리제단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일찍이 외치시면서 그 답을 명쾌하게 제시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이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저 좋은 말이기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조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은 자연히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섬겨야 도리에 맞는 것이다. 단군할아버지께서 외쳐왔던 홍익인간 사상도 인내천 사상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하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우리 교육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인성교육 부족으로 일어나는 참담한 사건과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바란다.* 김중현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68)

사람의 마음을 개혁하는 것이 천지공사다

구세주가 나와서 천지개혁을 하고 있다고 모르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둡고 악해서 그런 거예요. 천지개혁이 하늘과 땅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개혁하는 일이 천지공사입니다. 개혁은 순서껏 단계를 밟으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도 순서가 있거늘 하늘의 일을 하는 천지공

사에도 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서 천지공사의 집행과정을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하는데 있어서 급선무는 우선 마귀를 죽이는 것입니다.*

구도의 길

인류 전체의 영생을 위한 삶

1995년 조희성 구세주께서 헌금사기로 재판을 받을 때의 일이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영생이 사기라고 보았다. 그들은 있지도 않은 이슬성신을 내리서 영생을 준다는 것은 사기라는 논리였다.

이에 대하여 구세주의 변론을 담당한 조재석 변호사는 이렇게 답변했다. 벼꽃은 봄에 핀다. 봄이 아닌 가을 겨울에 벼나무에게 꽃을 피우라고 하면 벼꽃이 피는 수가 없다. 그러나 봄만 되면 벼꽃은 핀다. 영생도 그렇다. 조희성 선생은 때가 되면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봄이 아닌 겨울에 벼나무에게 꽃을 피우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아직 때가 아닌데 영생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다. 여름이나 겨울에 벼나무를 쪼개면 그 안에 벼꽃이 없는 것처럼 지금은 영생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이 세상을 영생의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하지만 인류 역사 이래 계속해서 사람의 세계가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구세주가 출현하였다고 금방 영생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망권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성경에는 구세주 출현이

후 1000년이 지나서야 완전한 영생의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벼꽃이 피려면 봄이 되어야 하듯이 영생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한다. 마귀가 완전히 박멸소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가능하다. 영생은 마귀가 완전히 소멸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구세주께서 논하는 영생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일부는 영생을 하고 그 나머지는 죽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게 조희성 구세주의 영생론이다. 그렇다면 지금 승리제단에서 열심히 '나'라는 마귀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과연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 수 있을까?

승리제단에서 영생대도(永生大道)를 닦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기 일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만일 자기 일신의 구원만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자신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자. 구세주께서는 지금도 300명의 의인을 키우고 계신다. 그 수가 차야 이 세상이 영생의 세계로 호물랑 변화가 될 것이다. 우리의 양 어깨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벱한 가슴을 펴자.*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본부제단 매일 노방전도 활동 펼쳐



인명숙 전도부장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본부제단은 6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6개지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개지역씩 번갈아가며 노방전도를 나

가고 있다. 각 지역마다 영생의 진리와 구세주 출현을 알리기 위하여 노방전도 시간 내내 전력을 기울인다. 6개지역 중 승리신문 구독회원 확보 성적이 가장 좋은 지역은 5지역이다. 5지역은 박철수 지역장과 신순이 지회장을 중심으로 지역 전 식구가 팀워크를 최대한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다.

노방전도는 승리제단과 구세주 조희성님에 대한 홍보와 승리신문 구독자 확보에는 최고의 효과를 보여준다. 대개의 지역은 메가폰이나 앰프를 홍보 수단의 1순위로 잡고 탑골공원 앞을 지나가는 인파들에게 구세주 출현 소식과 구세주가 행하신 5대공약을 외친다.

"구세주가 한국 사람으로 출현하셔서, 태풍과 여름장마를 막고, 풍년을 주십니다.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셨습니다. 남북통일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은 알고 있다. 전도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열매는 구세주께서 걷어 주신다. 열심히 씨앗을 뿌리자.*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